

# 화순 산림재해 복구 조림사업 박차

## 20억 투입 편백나무 조림 등 3개 사업 추진 봄철 조림사업지중 210ha 우박피해지 대상

화순군은 우박 피해로 수목이 고사된 대규모 산림 피해지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산림재해 복구 조림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기상이변에 따른 우박으로 동북면 유천·칠정·신율리 및 북면 옥리 등 2개 면 4개리 650ha(195만평) 산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피해가 심해 수

목이 고사된 임야를 대상으로 2019년 까지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산림재해 방지 조림 등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화순군은 20억원을 들여 편백나무 등 경제수 조림 207ha, 산림재해방지조림 94ha, 지역특화조림 21ha 등 총 322ha(7종 78만본) 규모로 올해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봄철 216ha 조림사업지중 210ha를 우박피해지에 집중 추

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천리 국도변과 저수지와 마을 주변은 편백과 목백합 등을 식재한다. 구 국도 2km 구간은 밀원수종인 아카시아나무 및 문관나무 3,000여주를 가로수 형태로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오는 30일 동북면 유천리 우박 피해지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3회 식목

일 행사를 갖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된 밀원수 15ha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호두나무(6ha)단지를 6차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단지화, 규모화를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산림 피해를 조기에 복구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조림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라며 “임업소득 증대는 물론 쾌적한 산림 경관을 제공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극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영 기자

### 주목! 이사람



**강인규**나주 시장은 15일 오후 2시 기술센터 2청사에서 열리는 2018농산물소

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설명회에 참석한다.



**김준성**영광 군수는 15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영광군·서영광농협·보리울·㈜을자연F&B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유두석**장성 군수는 15일 오전 10시 40분 복합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리는 동화면 복합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에 참석한다.

### 담양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6개월 이상 담양 거주 주민

담양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담양군에 거주한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담양군에서는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확인서, 기초검사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담양군보건소출산지원담당부서(061-380-3982)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한방 난임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갖춘 행복한 담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 장성 “우리밀 자급률 높이자” 지원 확대

### 생산 장려금 인상 생산기반 확충 기대

장성군이 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지만 자급률을 턱없이 낮은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놴다. 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새)국산밀산업협회와 장성군 관계자들은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밀 생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한 포대(40kg)당 생산 장려금이 일반 밀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무농약 밀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유기농 밀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밀은 ‘제2의 국민주식’으로 불린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32.1kg을 소비해 쌀(61.9kg) 다음으로 소비가 많다.

그러나 자급률은 1.8%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장성군은 밀 생산 장려금 인상이 생산기반 확충의 기폭제로 작용해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새)국산밀산업협회와 장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밀 주산지다. 전남도는 지난해 밀 재배면적이 200ha 이상이고 출하량이 656톤 이상인 장성군을 포함한 5개 군을 밀 주산지로 선정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밀 생산 장려금 지급, 밀 수확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 밀 재배 농가를 적극 돕고 있다”면서 “장성군의 밀 생산 기반 확대 정책이

우리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익출 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우리 밀에 대한 장성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소비 부문으로도 지원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우리 밀 수매량을 지난해의 50%로 배정했으나 소비량이 늘어난다면 전량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

## “옛 추억 담은 장흥 벽화거리 걸어요”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구도심 관광객 유치

장흥군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70~80년대 추억이 담긴 벽화 거리를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야기 장흥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장흥도요 시장이 있는 장흥읍 중앙리와 기양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하늘벽화봉사단의 재능기부가 더해지면서 더욱 활기를 얻고 있다.

현재 120면 가량의 벽화가 마을 담장을 장식하고 있으며, 추가로 160면 제작할 계획이다.

장흥읍은 구도심으로 변한 중앙리와 기양리 일대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입으로 마을이 활기

를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의 관광객들의 동선이 인근 마을까지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와 주민협의체를 거쳐 벽화 시안을 결정하고, 지난 2월부터 벽화제작에 돌입했다.

벽화는 70~80년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과 풍경부터, 당시 유행하던 인기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특히 담벼락의 창문과 기둥 등 주변 환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벽화는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게 한다.

벽화거리 외에도 장흥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옛터 이야기



장흥군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장흥읍 중앙리와 기양리 일원에 70~80년대 추억이 담긴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판’이 장흥읍 53개소에 설치된다.

예양공원은 자료수집과 고증을 거쳐 가사문학 시가비를 설치하는 등 ‘문화 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백형갑 장흥읍장은 “벽화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지역 이미지를 전하고, 이러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광군은 최근 군청 광장에서 기프트카 시즌 8 캠페인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 영광 청년창업가 기프트카 전달

영광군은 최근 현대자동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광장에서 영광 청년창업가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프트카 시즌 8 캠페인 청년창업 분야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미래기술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자립 기회와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차량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프트카 지원에 선정된 김모 씨는 3년전 백수업으로 귀농, 이번 기프트카 시즌 8 청년창업 분야에 지원해 창업용 차량 및 창업 지원금 등 2,417만원을 지원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대상자와 소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함평군 해보면은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8년 1/4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함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동

### 올해 1/4분기 정기회의 사업활성화 방안 논의

함평군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함평군 나산면과 해보면은 최근 2018년 1/4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 신규위원 위촉장 접수 및 올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나산면은 협의체 활성화 방안으로 각 위원들이 매달 1만원씩 정기기탁하고, ‘나산365 나눔 창고’에 기부된 한과 30박스, 라면 10박스, 생활용품 10박스, 쌀 (20kg) 8포대 등을 취약계

층 44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유병관 해보면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왕성한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민들도 참여해 심시일반 기부문화 조성, 아름다운 기부장구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각종행사 주문환영**

결혼, 회갑, 기업체 홍보, 제품홍보, 각종행사  
체육대회, 아이유회, 판촉, 선물, 개업, 기공, 준공  
종교단체행사(교회) 사찰 성당등

(전대4거리~신안다리, GS칼텍스 한빛주유소 옆)  
E-mail: Kjcolorowel@hanmail.net

# 타올나라

(주)영신타올 -전국공급본부-

칼타울, 자수타울, 스포츠타울, 재직타울 등  
100여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브랜드 전문타올매장

**백화점 브랜드타올 전국공급처**

피에르가르맹, 오마사리프, 마리골레르, 리틀토미, 로베르타, 루이마틴, 베로니카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

- ✓최고급 백화점 브랜드 타올 전문매장을 갖고 싶으신분!
- ✓다른 타올 대리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타올상회!!
- ✓직접전환 및 업종변경을 원하시는 분에게 강력추천!!!

**지역** 서울, 경기, 충청, 호남권(광주, 나주시, 여주시  
무안(신도청소재지)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기타 시 군단위

TEL. 527-4595 / FAX. 528-4595

백화점 브랜드 타올 전국공급처 • 서울대리점 02) 379-9037 • 수원대리점 061) 721-8202 • 익산대리점 063) 858-4595 • 전주대리점 063) 272-4595 • 목포대리점 061) 282-6801 • 전주원산대리점 063) 286-0915 • 군산대리점(대동) 063) 466-8422 • 군산대리점(대동) 063) 467-0360 • 홍성대리점 062) 251-4595